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7년도 표어 ☉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
-민족을 깨우는 우리교회 (사 51:17, 롬 13:11)

☉ 행동지침 ☉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강해

무너진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

(시편 74:1-23)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아삽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값 주고 사신 성도들을 구원하시어만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삽과 같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시편 74편의 역사적 배경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BC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군대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된 상태에서 씌어졌을 것이라는 데 의문을 품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의 파괴입니다. 본 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당하는 것을 보고 비분을 금치 못하는 한 시인이 선민의 구원과 성전의 회복을 애원한 민족적 탄원시입니다.

본 시의 저자는 무너진 도성과 성전 파괴를 슬퍼하며 다시 수축하기 위해 하나님께 열렬히 기도합니다. 이 시는 우리의 기도의 모델이 됩니다. 아삽의 기도처럼 우리도 직접적이고 열정적이며 정직한 기도를 하되 정중하고 지혜로운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삽의 기도는 겸손하면서 대담하고 열정적이며 효과적인 기도입니다.

1. 아픈 요청

슬픈 노래 소리는 예루살렘의 파괴를 연상하게 합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경험하고 관찰한 비참함이 끝이 없음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백성을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1절)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기억해 주시고 예루살렘도 생각해 달라고 청원합니다.

이 시와 아주 흡사한 아삽의 시-시편 79편이 있습니다. 두 아삽은 동일 인물로 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74:1, 79:5).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의 목장에서 기르시는 양이요 하나님의 기업이며 시온산은 친히 정하신 하나님의 처소입니다(1-2절).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들을 보호하실 의무와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수들이 쳐들어와 성전은 불탔고, 안식일과 절기들이 폐기되었으며 백성의 시체가 처처에 뒹굴고 시온성은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현상들에 대해 하나님께 아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 파괴된 도성을 정직하게 바라봄(3-8절)

3-8절은 파괴된 도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주 관심은 원수들이 성전을 파괴했고, 하나님이 예배자들을 만나는 성소가 짓밟혔다는 것입니다. 시편 79편에도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짓밟았다는 기사가 있는데 여기서는 시인이 흠어지고 죽임을 당한 백성들에 대해 근심했다면 74편에서는 하나님의 집이 무너진 것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교회가 파괴되고 있는 참상을 목격하고 있는 시인은 터질 것 같은 가슴을 부둥켜안고 부르짖습니다. “주의 발을 옮겨놓으소서”(3절), 즉 하나님께서는 앉아만 계시지 말고 폐허를 향해 발을 옮겨 달라고 애소합니다.

3. 얼마나 오래(9-11절)

아삽의 얘기는 완전히 버림받은 자의 낮아진 모습에 이릅니다. 아삽은 9절에서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라고 불평했습니다.

이 슬픈 고백은 아모스 8장을 생각하지 않고는 읽을 수 없습니다. 드고아 목장에서

온 아모스는 그 날을 예언했습니다.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립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암 8:11).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말씀보다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복음에 가치를 주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바치고 있습니까?

4. 불변하신 하나님(12-23절)

주의 성전과 성도들을 파멸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기원한 시인은 원수들의 행위가 자신이나 자기 백성에게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항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12-17절에서는 원수들이 조롱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앞에서는 시인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기억케 해달라고 간청한 것에 비해 12-23절에서는 시인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① 시인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행적은 과거 역사에서만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도 경험됩니다(13-14절).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날마다 주의 능력을 경험하며 산다는 것이 그 실례입니다(16-17절).

②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었습니다.

힘없는 주의 백성들은 잔인한 원수들 앞에서 마치 멧비둘기와 같은 처지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유약한 성도들을 들짐승같은 자들에게 내맡길 냉혹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뿐 아니라 섭리하시고 성취하십니다.

③ 시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땅의 어두운 곳’(20절)은 우상만 섬기는 하나님 신앙의 불모지를 말합니다. 이런 곳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두운 곳에 처한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적지에 억류된 성도를 버리지 않으시고 고토(故土)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자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시편 74편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의 모델입니다. 그러나 본 시는 하나님께 이 일을 이루시라는 단순한 호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셔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값 주고 사신 성도들을 구원하시어만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삽과 같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신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잘못 됐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신앙 위에서 아삽과 같은 간절한 기도를 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CTS, 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한국교회 지도자 금식기도대회

-복음화 된 통일조국 실현을 위하여-

12월6일(목) 오전10시 - 서울교회 본당에서

조국의 운명을 걱정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금식하며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탄원하는 금식기도대회가 12월6일(목) 오전 10시 우리교회에서 열린다.

지난 10년간, 한국사회가 좌파 성향으로 기울어 국가의 근본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부족하나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가치를 높이 들고 교회와 국가를 지키며 우리 민족과 세계를 복음화 하려고 몸부림쳐왔다.

지금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거짓평화 공세를 펼치면서 적화통일의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한미동맹은 점점 와해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 이전에 중국 내 탈북자들을 전원 색출하여 북한으로 강제 송환키로 하는 등 국내의 정세가 계속 어두운

소식만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은 와중에서 국가와 민족의 장래가 걸려있는 금년 12월 대선과 내년 봄 총선을 앞두고, 더 이상 좌파 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결연한 자세로 목회자들이 먼저 일어나, 장로들과 여전도회 및 청년 지도자들이 함께 허리를 졸라매고 금식 기도하면서 나라와 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받으며 결단의 시간을 갖게 된다.

공산주의의 허상과 세속주의의 망상, 즉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한국교회 지도자 기도대회에 나라 앞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초청한다. 이번 대회는 국내외의 70인 목회자회의와 한국 장로회 총연합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공동 주최로 열린다.

2008년도 섬김위원 확정 및 신임서리집사 교육·면접

- 신임 서리집사교육: 16일(금), 17일(토): 오전 6시15분, 18일(주): 오후 7시
 - 신임 서리집사면접: 21일(수): 오후 8시 30분, 22일(목): 오후 7시, 24일(토): 오후 5시
- 교육·면접은 택일하여 각 한 번만 -

우리교회 당회는 지난 11월 7일(수) 정기당회에서 2008년도 섬김위원들을 확정하였다.

신임 서리집사 282명과 기존 서리집사를 재확인 임명하고 14개 교구일꾼과 찬양대원 707명, 교회학교 교사 586명과 각 부 위원장을 비롯한 담당부서 책임자를 확정하였다. 이들은 오는 12월 첫 주부터 차례대로 임명식을 갖는다.

12월 첫 주는 서리집사, 교구일꾼, 둘째 주는 찬양대원, 셋째 주는 교사를 각각 임명한다.

한편 신임 서리집사 교육은 11월16일(금)부터 11월18일(주)까지 3회 실시되며 11월16일(금)과 11월17일(토)은 오전 6시15분, 11월18일(주)은 오후 7시

501호실에서 각각 열린다.

또한 신임서리집사 교육을 받은 이들은 11월21일(수)과 22일(목), 24일(토) 3일간 열리는 당회원 면접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당회원 면접은 11월21일(수) 오후 8시30분, 11월22일(목) 오후 7시, 11월24일(토) 오후 5시에 열리며 남자는 609호, 여자는 606호에서 면접을 받는다.(대기실 601호) 신임서리집사로 세움을 받는 이들은 위의 교육과 면접 일정을 참고하여 각각 한 번의 교육과 면접을 받으면 된다. 신임서리집사로 세움을 받는 이들에게는 지난 11월9일(금)에 우편으로 교육 및 면접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한바 있다.

위임 목사 설교 사역 위한 중보기도팀 조직한다

우리교회는 요한 웨슬레의 설교 사역을 위한 500명의 중보기도팀의 간절한 기도로 큰 역사가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더욱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종윤 위임목사의 설교사역을 돕기 위한 중보기도팀을 조직, 운영키로 하였다.

중보기도팀은 중보기도 헌신자들을 위해 개설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이 참여하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순례자를 통해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많은 성도들이 중보기도팀에 참여하여 더 큰 역사가 우리교회에 임하도록 기도한다.

인근의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구제의 손길 펴기로

우리교회는 2008년을 준비하며 교회의 목표인 선교, 교육, 구제의 세 기둥을 더욱 견고히 하고자 교회 인근의 어려운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구제의 손길을 펴기로 하였다. 먼저, 구룡마을의 독거노인 50명에게 매월 일인당 백미 10Kg을 지원하여 기초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로 하였고, 두 번째로 대치1동의 어려운 학생에게 생활보조비(매월 10만원)와 등록금(50만원씩 4회)을 지급하여 이 학생이 열심히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다.

협동목사 한 분 청빙키로

우리교회는 교회의 사역을 위하여 협동 목사 한 분을 청빙키로 하였다. 이번에 오시는 협동 목사는 김은수 목사(1962년생)로 서울대를 졸업하고 고신 신대원 졸업(M. Div), 미국 칼빈 신대원 졸업(Th. M 수료), 미국 트리니티 신대원을 졸업(Ph. D.)하고 현재 백석대학 신학연구소 연구교수로 있다.

피택장로 당회원 면접

11월20일(화) 오후 8시 604, 605호에서

오는 11월25일 교회설립 기념 주일에 제9대 장로로 임직을 받는 두 분 피택장로의 당회원 면접이 11월20일(화) 오후 8시 604호와 605호에서 1, 2조로 나누어 두 번 열린다.

성경일천독 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 필사: (10교구)최무순 권사 · 3독: (12교구)김숙자 권사
- 2독: (2교구)이윤희 권사 (3교구)김정순 권사 (12교구)이인선 권사 (13교구)양호경 집사 (14교구)신용식 장로
- 1독: (1교구)문옥일 집사 박문경 집사 박필순 집사 서향정 선교사 은기장 집사 이명구 성도 정정숙 권사 강요혜 성도 (2교구)고완순 권사 김영호 집사 최난수 권사 최윤성도 최형열 집사 (3교구)김계중 집사 진영숙 집사 (4교구)김금복 집사 박재숙 집사 최미희 집사 (5교구)오규자 집사 이민자 권사 이인근 집사 (7교구) 박태희 권사 박윤혜 권사 (9교구)안재선 집사 임낙식 집사 (10교구)권장환 집사 (11교구)이양철 집사 (12교구)김예환 권사 박정섭 권사 (13교구)김경희 집사 김동진 집사 김인숙 권사 서은석 집사 이은미 집사 홍건표 성도 (14교구)이종창 집사 임진호 성도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11월15일(목) 오전 8시30분 706호

2008년 대입 수험능력시험이 11월15일(목)로 다가왔다. 우리교회는 수능시험 당일 시험을 치는 학생들이 당황하지 않고 그동안 공부한 것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대입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를 갖는다. 수험생을 둔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태신자 명단

정덕면 이병룡 마정숙 우정자 임상옥 임상목 변용수 변수민 변동호 차숙자 김정숙 옥순희 이태희 이재현 하경수 김승희 정의경 김연수 노성렬 조운행 장동숙 조선행 홍동기 김기환 김좌기 유은주 전난향 안인주 조남영 신경순 조진성 윤영숙 송춘자 송태선 최성원 박인환 성경규 이민호 정길용 박기수 이우금 김철환 김도환 이정희 강나연 강진구 강성민 윤혜숙 이창희 안미정 김은영 이무룡 김경화 이윤창 이보은 김경애 안성은 최홍순 박춘순 박준우 광승우 이종현 이채현 정현미 이정희 이창미 오순애 강영환 김인영 최인숙 최형숙 최지숙 이현수 이서연 남성기 박종용 유세근 이정자 서광택 김중만 김교화 한장현 김영선 원태호 김희례 황일선 유기만 윤용옥 함용만 임영숙 인경희 정환분 김영태 백운봉 백지현 (다음 주 계속)

32학기 목회자세미나 대선후보 초청강연

국가 최고 지도자의 비전과 국가발전 (2)

지난 11월 5일 제 32학기 목회자 세미나에서는 정동영 대선 후보를 초청, '국가 최고 지도자의 비전과 국가발전'을 주제로 60분간 강연을 듣고 30분간 이종윤 목사의 질의와 대선후보들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그 내용을 정리 요약한 것이다



정동영 후보

저는 12년 전 정치계에 입문하여 오늘날 대통령 민주 신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되어 책임이 점점 무거워질수록 미약한 인간의 힘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요즘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23년의 기독교 역사는 근대화의 역사와 같이 합니다. 기독교는 우리나라의 교육과 일본으로부터의 독립과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여한 종교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를 헤매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같이 100여년을 광야에서 헤맨 대한민국도 이제 어디론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대한민국이 갱신되어 Global Standard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눈과 새로운 철학을 가지고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계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만 마음을 합하여 가기로 결심한다면 우리는 세계 한복판, 세계 초일류 모범국가로 갈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세대 동안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정치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한민국이 세계 초 일류국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에 가질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를 위해 기도해주시시오.

저의 목표는 통합입니다

통합으로 가기 위한 기준은 Global Standard

Global Standard가 되려면 우선 나라가 통합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포용과 통합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통합의 상징입니다.

지금 한반도와 주변은 거대하고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54년간 휴전체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분단과 대립과 증오와 미움과 분열이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세계 동서고금의 역사 속에 이렇게 전후 처리를 하지 못한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동서냉전 또는 강경대치로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이 대결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은

지난 100년간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운전해야 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휴전체제를 종전 체제로 바꾸고 평화 체제를 완성시키겠습니다. 평화협정시대가 되면 정치는 사상의 화해가 이루어져 더 이상의 반공 냉전주의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광야를 걸던 한 민족에게 역사의 문을 열어주시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문을 활짝 열고 분단과 대립을 넘어 서서 남북평화 협정 시대로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저의 목표는 통합입니다. 그리고 통합으로 가기 위한 기준은 Global Standard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들은 인정하고 평가하면서,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 속으로 뚫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질의 1. 지금 정 후보께서 통합의 정부를 이루겠다고 하시며 우리나라를 모범국가, 초 일류국가의 지리에까지 올려놓겠다는 높은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선 때만 되면 상대방후보에 대해서 비난과 비평소리가 너무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다른 면에서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는데 정치만은 왜 이렇게 후퇴를 하고 우리에게 아픈 모습을 보이고 있는나고 합니다. 그렇다면 통합의 정치를 외치는 정 후보께서 술선수법해서 상대방의 아픔과 약점을 꼬집기보다 자기 정책과 정치의 신념을 말하는 대선 후보가 될 마음이 있으십니까?

조금 덜 가져도

품격있는 삶을 사는 나라가 되도록 할 것

응답 - 목사님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말의 힘은 위대합니다. 사실 저 역시 지난 몇 년 동안 말이 많이 거칠어졌고 마음의 상처도 받았습니.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사과드립니다. 대통령이 되면 정말 말을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따뜻한 말, 위로의 말, 용기를 주는 말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덜 가져도 품격있는 삶을 사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2. 정 후보께서는 이명박 후보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20%는 잘 살고, 80%는 버려지는 경제 자본주의라고 질타하셨습니다. 이태리의 경제학자 파레토는 개미집단을 관찰하다가 20%만 일하고 나머지 80%는 놀기만 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일하는 20% 집단을 따로 관찰하니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여기서도 20%는 일하고 80%는 놀기만 했다는 사실을 보고한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20%와 덜 가진 80%를 대립시키면서 20%만 일류대학에 가서는 안 되고, 부자들에게 증과세를 해서 나누어 주자고 합니다.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지 80%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소위 선동적 구호에 집착한다면 이것은 일

종의 대중 영합주의라는 대중의 소리가 들리는데 이에 대한 정 후보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대기업은 육성하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이뤄져야...

응답 - 개미와 인간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 대 80의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0명 보다 100명 모두에게 일자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명박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 걱정하는 근거는 금산분리를 해지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20대 80이 아니라 10대 90의 사회가 됩니다. 이 후보는 우수한 20%만 육성해서 대한민국을 먹여살리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대기업은 육성하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대중을 선동할 생각도 없고 결코 그래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3. 우리 헌법은 한반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영토인 북한에서는 인권유린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에는 탈북자 수가 3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탈북자들에게는 강제송환과 생명의 위해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에 현금 지원만 계속할 뿐 인권 개선에 대해서는 합구하고 있고, UN의 인권 결의 표결에서도 기권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후 정 후보께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탈북자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어떤 정책을 펴시겠습니까?

북한을 하루 빨리 국제 사회로 이끌어내야

응답 -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중국 정부와 협력하여 탈북자들을 적극 보호하는 정책을 펴겠습니다. 우리는 하루 빨리 북한을 국제 사회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외부 세력과 적대적인 관계에서 개혁 개방은 김정은로서는 체제 위협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바뀌면 개혁 개방은 보편적인 개념이고 근대화의 전략이 됩니다. 북한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북한이 국제 사회의 일원이 되면 국제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바로 이것이 북한 주민의 생존권적 인권을 개선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질의 4. 2004년 총선 당시 정 후보의 노인 폼바 발언으로 온 나라가 어수선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발언의 진의는 무엇이며 정 후보는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응답 -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노인복지정책을 확실히 실행하므로 당시 노인들을 불편하게 해드렸던 마음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정리 허숙(편집부)

천국시민양성 - 사랑부 '천사들의 음악회'

'할 수 없음'이 '할 수 있음'으로

이현승 집사(사랑부교사)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전에서 그를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 할 지어다'

11월 18일(주) 오후 3시 10분 웨스트민스터홀에서 사랑부 천사들의 음악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사랑부 친구들은 연습시간을 즐거워하며, 기다리며,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것에 대해 너무나도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선생님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었습니다. 또한 그런 모습들이 이번 음악회를 감상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커다란 감동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 지도 몰라? 라는 우리들의 생각은 비장애우들의 기우요 자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친구들은 '할 수 있음'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조금씩 나타내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제1회로 많이 부족하고 미흡하겠지만 이번 기회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하여 더욱 더 풍성한 모습으로 발전 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오셔서 함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양하므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는 기쁨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전도목사 청빙

서울 강남노회에 소속된 서울교회는 하나님의 목회에 동참 할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코자 합니다.

- 1. 자격**
 - 1) 본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
 - 2) 전도에 특별한 은사와 훈련과 경험이 있는 분
- 2. 제출서류**
 - 1) 이력서(사진첨부) 1통
 - 2) 자기소개서 1통
 - 3) 주민등록등본 1통
 - 4) 전도목회비전 1통
 - 5) 건강진단서 1통
- 3. 제출기간**
2007. 12.5(수)까지 도착분에 한함.
- 4. 제출처**
서울교회 사무국 (서울 강남구 대치동 210번지 T.558-1106)

어린이 합창단 창단

우리교회는 교회에서 말씀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합창단을 창단하기로 하였다. 어린이 합창단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통해 기독교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미래의 찬양대원으로 체계 있게 육성하게 된다. 합창단원 모집은 추후 공지를 통하여 모집을 한 후 공개 오디션을 통해 60여명의 합창단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대상은 2007년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많은 어린이들이 어린이 합창단원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한다.

만민에게 전도-농촌전도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요

박광식 집사
(베드로선교회장)

10월27일(토)은 서울교회 농어촌전도100교회지원의 일환으로 베드로남선교회와 뽀뽀 여전도회가 후원하는 경북 안동시 풍천면에 있는 인공교회에서 전도하는 날이었다. 이



곳은 불교와 유교사상이 깊이 뿌리 내린 황씨 집성촌(약65가구)으로 2000년에 농어촌전도에 사명을 가진 젊은 전도사가 하나님 은혜로 설립한 미자립 교회로 전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 곳은 완고한 마을로 교회를 설립한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4월에 오셔서 전도한 사월교회(안동시 임동면)와 같이 드러내놓고 전도하면 마을 주민들의 큰 반항으로 불안하오니 가능하면 조용히 전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할 정도로 전도에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은 모든 마을 주민들이 예수님을 영접 할 수 있도록 더욱 기도와 전도교육으로 철저히 무장하였다.

아늑하게 지어진 인공교회에 도착하여 이태훈 목사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사

명자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깊은 은혜를 받았다.

기쁨 가득 찬 마음으로 파마, 이발, 의료를 하는 우리 전도대원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받은 주민들은 마음의 벽을 허물며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하기 시작하였다.

병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는 주기도와 사도신경을 종이엔 큰 글씨로 써 이불 위에 올려놓고 매일 읽고 있다며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고" 물어 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사신다고 한다. 그리고 찬양과 예수님의 말씀에 기뻐하며 내일 꼭 교회에 나오겠다고 하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 볼 수 있었다. 앞으로는 농어촌전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독거노인, 소년, 소녀 가장, 지역유지를 초청하는 것을 사전에 지역교회와 협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윤찬오 장로(전도위원장)의 의견도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짧은 시간에 45명이나 되는 마을 주민이 하나님을 영접하였다.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전도대원들과 동역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기회가 되었다.

동정

- 이종운 목사는 13일(화) 70인 목회자회를, 15일(목)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대학청년 지도자를 각각 소집한다.
- 정성 : 홍성주 장로 T. 031-796-7418
- 개업 : 김하경 성도(13교구) HK 재키 헤어팀, 은마상가 A블럭 227호 T. 555-2462
- 주간식당 봉사 : 도르가전도회(11.11) 루디아전도회(11.18)
- 금주의 식사 : 유종관집사, 진선자권사기정(자녀결혼을 감사하며) 교회제공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007 사망자대회(10월7일-11월25일)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2. 성경 일천독 대장정과 100만인 전도운동 성취되도록
3.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국가, 사회 되도록

●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